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미영*, 이형실**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Effects of Self-Esteem,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Han, Mi-Young* · Lee, Hyong-Sil**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elf-esteem,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Data were derived from 439 students in the 8th grad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internet addiction was higher in male adolescents compared to female adolescents. This study identified that internet addiction of male adolescents was affected by low levels of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s. Poor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low levels of peer relationships were factors influencing internet addiction among female adolescents. It might be useful to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 based on peers' interactions and to strengthen family relations in order to prevent internet addiction. In addition, it would help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and youth programs for preventing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주제어(Key Words) :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자아존중감(self-esteem), 부모와의 관계(relationships with parents), 친구관계(peer relationships)

I. 서 론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터넷은 이제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생활과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인터넷 활용능력 향상을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삼아 PC보급 및 인터넷 사용 기술 습득을 위한 학습을 필수교과 과정으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에 따라 인터넷의 확대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확대 보급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인터넷은 이용자들에게 정보와 지식축적의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는 반면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해서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불건전한 내용의 유포, 지나친 흥미와 오락 위주의 이용 등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 현상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은 마음이 복잡하거나 허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의존성과, 컴퓨터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컴퓨터를 끄고 빠져 나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내성 현상을 보인다. 또한 인터넷을 떠나 있으면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긴장이 해소되고 심지어는 쾌감을 느끼게도 된다. 인터넷 중독에서도 다른 중독성 질환에서 보이는 문제와 거의 유사한 자기 조절의 문제, 탐닉, 금단증상, 사회적 고립, 가정불화, 학습 부진, 경제적 문제, 실직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10대들의 인터넷 사용비율은 74.1%로 3,40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20대의 67.8%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겨레, 2000. 9. 1).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율은 2001년의 경우 중학생이 99.8%, 고등학생이 99.0%, 대학생이 99.3%이다(박영순, 2002 재인용).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생활의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학업이나 생활상의 장애 및 대인 관계 문제 뿐만 아니라 도박 범죄, 폭력, 살인 등까지 유발하고 있어 인

터넷 중독 현상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인터넷 사용이 필수화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중독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 경향을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요인 중 먼저 개인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중독자 중 상당수가 만성적인 낮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Young, 1998).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속한 가족이 주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모와의 관계 및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친구관계 요인과 인터넷 중독간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에 따른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에 중독되면 동료 거부나 결석이 잦아지고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가정에서도 가족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가족 단위의 외식이나 여행에 자주 참여하지 않는 등 대인 관계의 기피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지홍, 2002).

지금의 청소년세대에게 있어서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현재의 인터넷 중독은 미래의 인터넷 중독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 없이는 어렵다. 그러나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요인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개인, 가족, 사회적 요인과 폭넓게 관련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인, 가족, 사회적 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가정과 교육에 있어서 인터넷의 사용이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지도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을 살펴보고,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가정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의 기본 개념은 가상공간의 활동에 집착하고 의존하여 기분의 변화, 내성, 금단 증상, PC사용으로 인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재발 등을 경험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인터넷 중독장애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한 Goldberg(1995)는 중독의 개념을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규정하고, 인터넷 사용이 더 많은 사용을 해야 만족을 느끼게 되는 내성,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이면 초조나 불안 또는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 사고나 환상과 같은 증상이 일어나는 금단, 이와 함께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활동이 포기되는 사태가 지난 12개월 사이에 발생할 시에 이를 인터넷 중독 장애라고 정의하였다.

Suler(1996)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이버 공간을 통해 자아 정체감을 실험하고 탐색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불안정감을 통제하게 된다. 둘째, 친밀감과 소속감을 갖게 된다. 즉,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나타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셋째, 가족과 부모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킨다. 물리적으로 가족을 떠나지 않으면서 모험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좌절감을 발산하도록 하며 인터넷을 통해 빠른 반응과 공격적인 충동을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청소년들은 인터넷 공간을 자신들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었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사회를 경험한다. 호기심이 많은 시기에 인터넷이란 바다는 청소년을 자극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등장한 청소년 문제 중 하나인 인터넷 중독은 현재 음란물 접촉, 음란 채팅, 반사회적인 사이트 운

영,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채팅 중독 등의 형태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 상담원에서 1998년에 Young(1998)의 척도를 사용하여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9%가 중독 경향군에 속하고 있었고, 남학생의 39.9%, 여학생의 17.8%가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서울 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2000)이 서울시내 PC방에서 중고생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스스로 '사이버 중독자'라고 밝힌 청소년이 30%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많은 선행 연구에서 청소년층이 인터넷 중독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중독점수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독 경향군에 포함되는 비율이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이명수 외, 2001).

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요인

1) 자이존증감

자이존증감이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자이존증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의 판단이다(Coopersmith, 1981).

인터넷은 심리적 부적응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혹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은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기에 인터넷은 매력적인 것을 넘어서 중독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이 다른 중독장애와 유사한 심리적·사회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터넷 중독자 중 상당수가 만성적인 낮은 자이존증감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자는 대인커뮤니케이션 회피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송인덕, 1999),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이 낮은 자기통제력과 대인관계 효능감과도 관련이 있다(송원영·오경자, 1999)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김종범(1999)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 집단의 경우 비 중독집단보다 자이존증감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를 통해서 볼 때 인터넷 중독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와의 관계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해서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나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제한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게 된다.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가 어떤 고민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며, 또한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무관심하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이처럼 부모와 자녀 간 관계가 멀어질 때 자녀는 부모 대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상대를 찾게 되며 그 상대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자신의 상황을 서로 이야기하게 된다. 남현미(1999)의 연구를 보면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가족에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이 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Young(1998)은 인터넷 중독자들이 실제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청소년 중독자들은 부모로부터 이해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에 갇혀 있는 느낌이라고 호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시형(2000)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 위험군이 비위험군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친구관계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점차 커진다(Berndt, 1997; Corsaro & Eder, 1995). 청소년기에는 관심이 자신과 비슷한 친구들에게 향하게 되며 또래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나타나 이런 집단에 소속될 때 안정감을 느낀다. 그리고 현실세계에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하여 친구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청소년은 자기를 실제로 드러낼 필요도 없고 또 실제와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에 빠질 수 있다(이시형, 2000).

Young(1999)은 사회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고 자신을

바꿀 수 있으며 다른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에 중독될 수 있다고 보았다. 황상민·한규석(1999)은 인터넷이 실제의 자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인물로 행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해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혹적인 공간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한국 여성만우회(2000)에서는 가상현실지향, 절제 실패, 피해 경험의 3가지 유형으로 중독유형을 분류하였는데, 가상현실지향형과 피해 경험형의 경우에는 교우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형(2000)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의 친구관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인터넷 중독 위험군이 비위험군보다 자신을 더 외톨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중요한 사회적 관계인 친구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인터넷 중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인터넷 중독을 보이는 집단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밝히고자 시도한 연구는 있으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더구나 개인, 가족, 사회적 요인과 인터넷 중독간 관련성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을 살펴보고 자존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자존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에 따라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자존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는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439*

특성	구분	N(%)
성별	남학생	228(51.9)
	여학생	211(48.1)
주관적 경제수준	상	28(6.4)
	중상	158(36.2)
	중	199(45.5)
	중하	45(10.3)
	하	7(1.6)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122(28.8)
	전문대졸	24(5.7)
	대졸	194(45.9)
	대학원졸	83(19.6)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158(37.4)
	전문대졸	15(3.5)
	대졸	211(49.9)
	대학원졸	39(9.2)
아버지 직업	실직 및 무직	15(3.5)
	근로자	33(7.7)
	숙련공	40(9.3)
	판매직	59(13.8)
	사무직	163(38.1)
	관리직·전문직	118(27.5)
어머니 직업	실직 및 전업주부	251(58.2)
	근로자	18(4.2)
	숙련공	10(2.3)
	판매직	55(12.8)
	사무직	71(16.5)
	관리직·전문직	26(6.0)

* 변수마다 총 응답자수에는 무응답으로 인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중학생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되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4개 중학교 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조사는 2005년 7월 18일부터 7월 22일 사이에 담임교사의 지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부실기재 된 41부를 제외한 439부(남학생 228명, 여학생 211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터넷 중독 검사는 인터넷 중독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Young(1998)의 온라인중독센터에서 만든 검사를 윤재희(1998)가 번안하여 예/아니오의 양분 문항으로 변형하고,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이선희(2000)가 수정 보완한 검사이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넷이나 통신 사용과 관련된 강박적 행동이나 학업 부진, 경제적 어려움, 행동상의 문제 및 정서적 변화, 대인관계의 문제 등을 나타낸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가능한 총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이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78)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묻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묻는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존중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bach's α 는 .69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민혜영(1990)이 번안한 것과 청소년보호위원회(2000)가 사용한 질문지를 수정하여 5점 리커트 척도의 15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Crobach's α 는 .59로 나타났다.

친구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Turner, Frankle과 Levin(1983)이 개발한 사회적 관계 척도를 이시형(200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관계와 친구관계를 평가하는 두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 부분의 5문항만 사용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원만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외톨이 경향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친구관계에 대한 Cro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방법

SPSS/WIN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 대상자가 보고한 인터넷 사용을 Young(1996)의 인터넷 중독 집단구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표 2). 인터넷 중독 점수가 20-39점인 비중독 집단의 경우는 온라인 이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내며, 점수가 40-69점인 중독경향 집단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집단으로서 앞으로의 인터넷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집단으로 분류된다. 점수가 70-100점인 중독 집단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집단으로서 인터넷 사용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하는 집단이다.

전체 조사 대상자에서는 중독 경향 집단이 54.9%로 가장 많았고, 비중독 집단이 31.7%, 중독 집단이 3.0%였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중독경향 집단이 62.3%로 가장 많았고, 비중독 집단이 21.9%,

중독 집단이 4.8%였다. 여학생의 경우 중독경향 집단이 46.9%, 비중독 집단이 42.2%, 중독 집단이 0.9%였다.

<표 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

구 분	범 위	전 체	N(%)	
			남	여
비중독 집단	20-39 점	139(31.7)	50(21.9)	89(42.2)
중독 경향 집단	40-69 점	241(54.9)	142(62.3)	99(46.9)
중독 집단	70-100 점	13(3.0)	11(4.8)	2(0.9)
계		393(100.0)	203(100.0)	190(100.0)

2.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3).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인터넷 중독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4.91, p < .01$). 즉, 남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년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인터넷 중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이존중감에 따른 집단간의 인터넷 중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31, p < .01$). 즉, 남자 청소년은 자이존중감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인터넷 중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이존중감에 따른 집단간의 인터넷 중독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표 3>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

요인	전체			남			여			t
	N	M	SD	N	M	SD	N	M	SD	
인터넷 중독	393	44.66	12.77	203	47.63	13.25	190	41.50	11.46	4.91**

**p < .01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 증상이 성별에 관계없이 나타난다고 하는 김순태(2001)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인터넷 중독 수준을 보인 선행연구 결과(한국 청소년 상담원, 1998; 이명수 외, 2001)와 일치한다. 이는 남자 청소년이 평균적으로 여자 청소년보다 먼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것과 관련시켜볼 수 있다.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보다 일찍부터 소프트웨어를 구하기 위해(정보욕구), 게임을 하기 위해(오락욕구), 혹은 친구들과 사이에서 존경을 받기 위해(사회적 욕구)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며(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이러한 욕구의 정도가 여자 청소년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중독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이존중감이 낮은 남자 청소년들은 더 높은 수준의 인터넷 중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터넷 중독자가 낮은 자이존중감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Young, 1996), 그리고 인터넷 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보다 자이존중감이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김중범, 1999)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이 자이존중감이 낮은 경우 자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심리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이 야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자이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차이

자이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에 따른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해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증방법으로 Duncan의 다중 t-검증을 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자이존중감에 따른 인터넷 중독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이존중감 수준에 따른 집단간에 인터넷 중독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59, p < .01$). 즉, 자이존중감이 낮은 청소년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5.32, p < .01$). 즉,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지 않은 집단의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인터넷 중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F=3.49, p < .05$)과 여자 청소년($F=8.15, p < .01$) 모두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집단간의 인터넷 중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 청소년 모두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지 않은 집단이 더 높은 수준의 인터넷 중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 점수와 부모의 스트레스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맹미희,

〈표 4〉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친구관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

구분	전체				남학생				여학생				
	N	M	SD	F	N	M	SD	F	N	M	SD	F	
자아존중감	상	59	40.98 ^{ab}	12.74	35	42.37 ^a	13.72		24	38.96	11.12		
	중	268	44.66 ^b	12.29	6.59**	130	47.63 ^{ab}	12.23	6.31**	137	41.64	11.43	1.70
	하	49	50.00 ^c	13.95		29	53.90 ^b	14.89		21	45.24	11.87	
부모관계	상	70	37.54 ^a	9.69		40	43.02 ^a	12.93		41	35.68 ^a	9.08	
	중	263	46.25 ^b	12.47	15.32**	133	48.82 ^b	12.31	3.49*	119	42.99 ^b	11.49	8.15**
	하	53	47.51 ^b	14.29		26	50.08 ^{ab}	16.44		27	45.04 ^b	11.64	
친구관계	상	59	37.64 ^a	9.82		30	41.33 ^{ab}	12.87		25	34.76 ^a	8.38	
	중	242	44.42 ^b	11.92	20.54**	122	46.57 ^b	12.02	11.71**	125	42.09 ^b	11.37	6.61**
	하	64	51.61 ^c	14.41		34	56.00 ^c	14.15		29	49.41 ^b	11.75	

*p < .05 **p < .01

2003)와 연관이 있고, 부모신뢰가 인터넷 중독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박영숙, 송현중, 2002)와도 연관이 있다.

친구관계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차이를 검증한 결과, 친구관계에 따른 집단간의 인터넷 중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0.54, p < .01). 즉,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집단이 더 높은 수준의 인터넷 중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F=11.71, p < .05)과 여자 청소년(F=6.61, p < .01) 모두 친구관계에 따른 집단간의 인터넷 중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관계에 따라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집단의 청소년이 친구관계가 원만한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인터넷 중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관계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박영숙, 송현중, 2002)와 일치하는 것이다.

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관련요인의 영향력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이에 앞서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이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R²=.17로 나타났다. 친구관계(β=-.31, p < .001)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와의 관계(β=-.16, p < .01) 순이었다. 즉,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구관계(β=-.32, p < .001)와 자아존중감(β=-.19, p < .05)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²=.21이다. 즉,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남자 청소년들은 더 높은 수준의 인터넷 중독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β=-.27, p < .01), 그리고 친구관계(β=-.23, p < .01)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²=.14이다. 즉,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여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인터넷 중독을 보였다. 또한 남자 청소년은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더 많이 나타나며, 여자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가 원만

하지 않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인터넷 중독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독경향군이나 중독군에 포함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후속연구에서는 성

〈표 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전체		남학생		여학생	
	B	β	B	β	B	β
자아존중감	-.11	-.06	-.36	-.19*	.04	.02
부모관계	-.18	-.16**	-.08	-.07	-.25	-.27**
친구관계	-.32	-.31**	-.35	-.32**	-.22	-.23**
상수	82.83		90.45		71.53	
R ²	.17		.21		.14	
F	23.74**		15.27**		9.18**	

*p < .05 **p < .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생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의 경향을 살펴보고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남녀 청소년들의 과반수 이상이 인터넷 중독경향 집단이나 중독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터넷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하는 중독 증세를 보이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집단으로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주변의 관심이 항상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이다. 이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서주현, 20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000; 김순태, 2001)에서 보여주는 수치들보다 높은 수준이거나 유사한 수준이며, 이러한 결과가 대학생이나 일반인이 아니고 PC방과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 조사한 것도 아닌 일반 남녀 중학생에서 나타났다. 점에서 주목할만한 것으로 후속연구를 통한 검증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인터넷 중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에 따라 인터넷 사용에 대한 더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남자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실생활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하여 실제 자신의 모습은 숨기고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만 추구함으로써 심리적 부적응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한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낮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낮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윤영민, 2000)와 일치하는데, 부모가 온정적인 지지와 함께 민주적이면서도 권위가 있는 통제 방식으로 자녀를 대할 때 가장 바람직한 사회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Gegas (1981)와 Cosaro & Eder(1995)의 주장에 근거하여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개방적인 대화로서 자녀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처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집단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 집단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 결과(윤영민, 2000)와 유사하다.

셋째, 여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원만하지 않은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나 친구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인 변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행동으로 표출되는 자녀의 욕구를 부모가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청소년 시기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기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성인이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기간임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과 민주적인 부모의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또래관계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원만한 관계 형성을 통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친구관계와 자존감이 인터넷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친구관계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보다 친구 및 학교에서의 또래 관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김준호·김순형, 1996) 연구결과와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관계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따돌림이나 괴롭힘, 그리고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친구와 어울리는 문제 등이 발생할 때에는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며, 건전한 친구관계의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회적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전체 청소년 집단으로 일반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일반청소년 외에도 근로 청소년과 보호기관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 집단과 여러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비롯하여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는 주로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척도를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실정에 맞고 보다 정확하게 인터넷 중독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차원적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존감과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인터넷 중독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개인의 긍정적 발달과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가정과 교육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청소년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 김순태(2001). **고교생의 인터넷 중독과 자존감, 우울, 감각추구성향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종범(1999).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 : 자존감, 우울, 외로움,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준호, 김순형(1996).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맹미희(2003).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충동성, 자존감과 인터넷 중독의 상관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순(2002).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부모의 통제를 기준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주현 (2000).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친구관계의 기능, 구조적 특성 및 만족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원영, 오경자(1999). 자기 효능감과 자기 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1999년 하계 임상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 송인택(1999). **온라인 중독증 개념의 타당성 검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영민(2000). 청소년 인터넷사용. **정보와 사회**.
- 윤재희(1998).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수, 오은영, 조선미, 홍만제, 문재석(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증과 우울, 사회적 불안, 또래관계 문제와의 연관성 조사. **신경정신학회**, 40(4), 616-626.
- 이시형(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 교육**.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한국청소년상담원(2000). **청소년의 PC중독**. 한국청소년상담원.
- 황상민, 한규석(1999). **사이버공간의 심리 - 인간적 정보화 사회를 향해서**. 서울 : 박영사.
- Barnes, H.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erndt, T. (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606-616.
- Corsaro, W.A. & Eder, D. (1995). Development and socializ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S. Cook, G.A. Fine, & J. S. House(Eds.),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psychology*, Boston: Allyn and Bacon.
- Goldberg, I. (1995). Internet addiction. <http://plaza1.sun.ac.kr/~psyber/iad.htm>
- Rosenberg, F. R. & Rosenberg, M. (1978).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279-291.
- Suler, J. (1996).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http://www.rider.edu/users/suler/psyber/cybaddict.html>.
- Young, K. S. (1996). Psychol of computer use :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79, 899-902.
- Young, K. S. (1997).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athological inte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August, 1997.
- Young, K. S. (1998). *Internet misuse in the workplace*. Credit Union Management.
-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를 살펴보고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서울 시내의 중학교 2학년 학생 439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인터넷 중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원만하지 못한 친구관계와 낮은 자아존중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개인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가정과 교육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